

중국 전통서사 속 科擧로 보는 사회적 보편성과 殘影

강 종 임*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과거 제도의 잔영 |
| II. 부정적 서사 기제로서의 科擧 | V. 나오는 말 |
| III. 긍정적 서사 기제로서의 科擧 | |

I. 들어가는 말

인간이 애초에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인간다워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문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익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관리를 뽑기 위한, 혹은 계층을 기층하기 위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공부는 결국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공부가 재력이나 권력과 등가에 놓이는 현상이 난무하면서, 공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전통시기 중국의 공부에 대한 관념은 科擧 시험을 소재로 한 많은 서사 작품들 속에 잘 드러난다. 중국문학사에 거론되는 주요 작품들 가운데에는 《鶯鶯傳》이나 《霍小玉傳》 등 과거 시험이 비극적 결말로 치닫게 되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혹은 《李娃傳》·《拜月亭》·《牆頭馬上》 등 주인공의 과거 급제로 인해 었힐 대로 었힐 갈등이 순간에 해소되는 작품들도 보인다. 그 작품들이 중국문학사의 반열에 오르고 오랜 시간 인구에 회자되는 데에는 작품에 환호했던 독자들의 공감도 매우 큰 기여를

* 동국대학교(경주)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의 감정이 이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이야기에 대해 자신이나 혹은 가까운 주변의 일인 것처럼 공감하고 있으며, 그 공감은 당연히 독자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류의 공통적인 감정과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독자들은 그들이 읽은 문장 뒷면에 숨어있는 사회적 보편성을 알아채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드러나는 담론은 창작 당시의 사회상과 가치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¹⁾

이 글은 공부의 본질적 의미가 중국 전통시기에 과거 제도로 인해 왜곡되었던 다양한 모습들이 현대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비정상적 거대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²⁾ 전통시기 중국에서 1,300여 년 간 지식인들의 정신을 지배한 과거 제도는 혼인과도 긴밀하게 연관된 채 지속되었다.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가치, 즉 入世³⁾를 통한 정치적 이상실현과 부귀공명은 적어도 평범한 사인들에게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감내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은 긴 시간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

- 1) 이와 관련해 루카치는 “서사작품 속의 주인공은 살아있는 인간의 그림자이며, 그에게 체험과 모험으로 부과된 세계는 사실적인 것의 희석된 모조품에 불과하다. 이야기는 결코 현실의 창조가 아니라 언제나 이미 현존해 있는 현실의 주관적인 반영일 뿐”(게오르그 루카치(김경식 옮김), 《소설의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2011, 52쪽)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 2) 「서울대생 자살 부른 자학적 ‘수저론’과 ‘헬조선’의 함정」(2015.12.25, 미디어펜), 「개천에서 용 못난다... ‘흙수저론’ 빠진 한국사회」(연합뉴스, 2016.12.12, 연합뉴스), 「자녀교육에도 수저론... “부모 재력, 지위가 큰 영향”」(2017.1.16, 한국일보), 「4차산업혁명론, 어떻게 ‘금수저’의 배를 불리나」(2017.7.2, 오마이뉴스), 「부모 능력에 달렸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금수저 전형’」(2017.7.7, SBS 뉴스) 따위를 예로 들 수 있다.
- 3) ‘入世’의 ‘入’은 개입이라는 뜻이다. 주로 사회생활, 특히 국가, 정치와 관련 있는 공공의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함을 나타낸다.(이중텐(강경이 옮김), 《제국의 슬픔》, 서울, 라의논, 2015, 372쪽.)

속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들이 작가가 살았던 시대 및 그의 시대와 매우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 후대의 역사가들에게까지도 사실적이며 진실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이야기꾼은 그의 이야기를 지적해줄 강한 근거를 늘어놓을 수 있었다. 따라서 텍스트 자체는 많은 ‘진실의 표정’을 보여준다.⁴⁾ 이는 중국의 과거 제도를 논한 많은 이론서들이 그 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唐 傳奇와 회곡 작품, 그리고 청대 소설에 등장하는 관련 이야기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방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통시기 중국 지식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이자 삶의 질곡이었던 과거 시험을 담고 있는 서사 문학 작품들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작품들 속에서 과거 제도와 혼인으로 얽혀있었던 보편적 가치가 서사 작품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줄 것이며, 이는 중국 전통시기의 科擧 담론과 그 깊은 뿌리가 남겨 놓은 현재적 잔영을 통찰해보는 시론적 연구가 될 것이다.

II. 부정적 서사 기제로서의 科擧

소설을 포함한 중국 고대 서사문학 속에서 과거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唐代를 기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科擧制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을 소재로 한 당 전기 고사들 속에서 과거라는 제도의 존재는 이야기 결말의 희비를 좌우하는 상당히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당 전기에서 유독 그러한 소재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傳奇를 지었던 작가 대부분이 士人⁵⁾이라고 불리던 지식인이었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일 것

4) 루샤오핑(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강릉, 길, 2001, 168-169쪽 참조.

5) 고대 중국에서는 지식인을 ‘士’로 지칭했다. 사인이 중국 역사에서 독립적 계층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春秋시대부터였다. 그들은 일정한 생업은 없지만 뚜렷한 이상을 지닌 지식인으로서 지식에 의지해 생계를 모색했다.(찌에쓰

이다. 더욱이 이들 지식인들이 바로 정치를 하고, 문학창작을 하며, 교육까지도 아울러 담당하는 중국 고대의 주된 계층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중국 고대의 매우 독특한 사회 현상으로 지식인들은 본격화된 과거 제도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거나, 더 나아가 문벌세가와 혼인으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당연시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사 작품의 성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새삼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관리 선발 제도로서의 과거 제도는 약 1,300여 년간 지속되었다. 중국에서 과거 시험이 실시되던 시대에 유럽은 겨우 봉건적인 騎士 制度가 틀을 잡아가고 있었다. 유럽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과거 제도는 “차원을 달리 할 만큼 진보한 제도이며, 당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이념을 갖고 있었다.”⁶⁾ 이렇게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양의 공무원 선발제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중국이 과거제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다. 먼저 兩漢 시기에는 사람을 관찰한 후에 발탁하는 察舉制를,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추천을 통해 발탁하는 薦舉制를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과거제는 隋唐 이후부터 시행되어 중국의 인재 선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唐代에는 진사에 급제해도 추천을 받지 않으면 바로 관직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말하자면 ‘選擧’의 본래 의미가 살아있던 시기이며 관리 선발 제도가 가장 완벽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었다.⁷⁾ 물론 당대 중엽 이후 정치권력이 중앙에서부터 차츰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재래의 관리 임용 제도가 크게 붕괴되고, 과거제 또한 본래의 취지

중 편저(정세경 옮김), 《생각의 틀을 넓히는 교양 다이제스트》, 서울, 해문서관, 2008, 105쪽.)

6) 미야자키 이치사다(전혜선 옮김), 《과거, 중국의 시험지옥》, 고양: 역사비평사, 2016, 220쪽.

7) 이종텐, 앞의 책, 353-354쪽 참조.

와는 달리 막강한 관료 계층이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부류를 양산하는 부정적인 환경들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소설 작가들은 주로 진사 시험에 낙방한 서생들의 애정 행각을 그리거나,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만을 추구하던 시대사조를 풍자하거나, 혹은 스스로의 숙련된 문필로 과거와 관련된 奇聞異說을 전록하기도 하였다.⁸⁾

그리고 당 전기의 작가 계층의 상당 부분이 주로 사인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쏟아지는 문장과 넘쳐나는 인재들 속에서 자신의 문필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유행하게 된 行卷⁹⁾의 영향과도 직결된다. 다시 말해서 인상적인 한 작품에서 자신의 재주가 드러나야 한다면, 이왕 그들의 현실과 닿아있으면서도 흥미로운 주제 선정에 고심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얽혀있는 이야기는 그런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매우 적합한 소재였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 시험이나, 그것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그 당시의 가치관은 문학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투영된다. 그 대표적인 서사작품으로 張生과 鶯鶯의 사랑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다.

그들의 사랑은 매우 은밀하고 위험하게 시작되기에 독자의 설렘과 기대가 더욱 고조된다. 하지만 西廂에서 이루어진 몇 달 간의 밀회는 과거를 보러 장안으로 떠나는 장생에 의해 끝나게 된다. 이별의 안타까움은 별다른 반전 없이 두 남녀가 각각 다른 배우자를 맞아 혼인한다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결말로 이어진다. 결국 영원을 서약했던 두 사람의 사랑에 위기는 ‘과거 시험’이라는 사회제도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자신의 배신을 합리화하고, 사랑을 파기하는 장생의 모습이나 깨끗이 단념하는 앵앵이라는 인물의 형상, 사랑의 진실성 여부 등등 《앵앵전》에

8) 정범진 편역, 《앵앵전》,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5, 24쪽.

9) 행권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자신의 문학 창작물을 편집하여 두루마리로 만들어 시험을 보기 전에 당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한 문단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이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예부시랑에게 추천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위치우위(유소영·심규호 옮김), 《천년의 정원》, 서울, 미래M&B, 2003, 372쪽.)

서의 논의는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작품의 비극성을 결정짓는 계기는 과거 시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랑은 시대를 건너뛰어 원대 잡극 《西廂記》로 재생되면서 그 결말은 이전과 완전히 배치된다. 즉 《서상기》는 《앵앵전》과 달리 장생이 과거 급제를 하고, 그것이 이어져 두 남녀가 혼인에 이르면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신과극 같은 《앵앵전》의 스토리가 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서상기》의 스토리이다. 그것은 《서상기》의 스토리가 《앵앵전》보다 더욱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시험으로 인해 사랑의 위기를 맞게 되는 또 다른 이야기로는 《霍小玉傳》을 들 수 있다. 이 이야기의 남자 주인공인 李生은 나이 스물에 진사에 급제하고, 이듬해 관리로 선발되기 위하여 吏部에서 보아야 할 시험을 기다리고 있었다.¹⁰⁾ 또 여자 주인공인 霍小玉은 霍王의 서출이라는 이유로 쫓겨나 기생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 이 둘은 깊은 사랑에 빠져 2년이 넘도록 부부처럼 지낸다. 그들의 이별은 이생이 主簿라는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시작된다. 임지에 도착한 뒤 얼마 안 되어 이생은 집안의 강요로 명망 있는 노씨 가문의 이종누이와 혼례를 올리게 된다. 그로 인해 병을 얻은 霍小玉은 한을 품으며 죽게 된다. 그 후 이생은 노씨와 혼례를 올리지만, 그의 의처증이 악화되면서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러 결국 아내와 헤어졌다. 그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세 차례나 아내를 맞이하였지만 원만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에 이르게 된다.

이 작품에서 이생이 얻은 의처증과 그로 인한 불행한 결혼 생활은 霍小玉을 배신한 불의에 대한 응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 배신을 묘사한 이야기는 매우 흔한 것이었다. 예컨대 명대 희곡작품인 《琵琶記》 역시 고향에 두고 온 아내가 있음에

10) 당대에는 禮部에서 관장하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진사 급제라 해서 관원이 될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관직을 바로 수여받는 것이 아니라 吏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한 번 더 거쳐야 했다.(이중텐, 앞의 책, 353-354쪽 참조.)

도 불구하고 장원 급제와 동시에 승상의 딸과 강제로 혼인하게 된 채옹의 이야기 또한 그러한 것에 속한다. 물론 이 희곡 작품에서 채옹이 자신을 찾아 온 조강지처도 같이 보듬어 살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희비극을 떠나 과거 급제로 야기 되는 신분 상승과 그것에 동반되는 배신이나 이별 등은 비단 전통시기에만 존재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 속에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곽소옥전》은 시인 李益(748~827)이 大曆 연간에 겪었던 실제와 가까운 일들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 번 혼인을 했다는 기록은 어느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다. 단지 의처증이 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곽소옥의 존재는 실존했던 曠王 李元軌의 사망년도(688)로 미루어 실존했던 인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작품 속에서와 유사한 처지의 여인들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¹¹⁾ 《앵앵전》의 장생도 사실은 작가 元稹이 자신의 애정 행각을 장생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서술한 것이다.¹²⁾

이처럼 실존 인물과 작품 속 허구의 교착은 唐代 사회의 여러 모습에 대해 더욱 더 실감나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이 두 작품은 이후 지속적으로 전해져 각각 천하 모든 희극의 으뜸이라 일컬어지는 원대 왕실보의 《서상기》와 명대 湯顯祖의 《紫釵記》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는 이런 구조의 이야기가 후대 사람들도 많은 호응을 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 전달하고 있는 과거 급제와 그에 따른 배신이라는 갈등의 양상이 고대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명제였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과 연관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세태를 풍자한 傳奇인 《침중기》는 몽유적 구도를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역설하고 있다. 도사

11) 李劍國, 《唐五代志怪傳奇叢書》,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4, 450쪽.

12) 魯迅 撰, 《中國小說史略》 卷9,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53쪽.

呂翁이 邯鄲의 주막에 잠시 머무르는 중에 盧生이라는 젊은이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다. 여옹의 베개를 베고 잠이 든 노생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인생의 부귀영화를 모두 누리게 된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노생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 결말은 허망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로 이어진다.

《침중기》의 문학사적인 의의는 부귀영화가 한낱 몽환에 불과하며, 언어도 기뻐할 것 없고, 잃어도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달관의 인생관을 통해 세태를 풍자한다는 데에 있다.

무릇 총애와 모욕의 길, 곤궁과 영달의 운명, 성공과 실패의 이치, 그리고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실정 등,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¹³⁾

그러나 그 반면에는 그 당시 사인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했던 인생의 가치를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꿈에 들어가기 전 노생은 여옹에게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과 그에 못 미치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한 것에서부터 알 수 있다.

남아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功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조정애 들어와서는 재상을 지내며, 여러 가지 음식을 풍부하게 장만해 놓고 먹고 훌륭한 음악을 골라 들으며, 가족은 더욱더 번성하고 살림은 더욱더 부유하게 된 다음이라야 비로소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주도 풍부하여 스스로 그 당시에는 어떠한 고관의 자리도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농사에만 골몰하고 있는 신세니 어떻게 따분하지 않겠습니까?¹⁴⁾

13) 夫寵辱之道，窮達之運，得喪之理，死生之情，盡知之矣。《枕中記》(이하 당 전기 원문 인용은 徐士年 選注, 《唐代小說選》(鄭州, 中州書畫出版社, 1982)을 참고하였음.)

14) 士之生世，當建功樹名，出將入相，列鼎而食，選聲而聽，使足益昌而家益肥，然後可以言適乎。吾嘗志于學，富于游藝，自惟當年，青紫可拾。今已適壯，猶勤畝

위의 인용문을 보자면 적어도 작품 창작 당시에도 부귀공명은 동서고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최대의 목표이자 이상이었던 듯하다. 물론 인간은 저마다의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결코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노생의 하소연 속에 드러나는 속물적 욕망들이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의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솔직한 고백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권세와 부귀에 대한 욕망과 그 여의치 않은 현실로 인해 갖게 되는 懷才不遇가 지금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감회인 것을 보면, 그 가치가 지닌 사회적 보편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통시기 중국에서 사인들이 추구하던 가치, 즉 입세를 통한 정치적 야망과 부귀공명의 실현은 적어도 평범한 사인들에게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 봉건 사회에서 사인이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일단 벼슬길에 오르면 품계에 따라 다양한 대우를 받았다.¹⁵⁾ 그러나 애초에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합리적인 관리 선발 제도가 오히려 천여 년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질곡이 된 데에는 그만한 사회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¹⁶⁾ 그러나 관료 사회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길이 없었던 사인들은 매우 힘들긴 했지만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것이 요구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사인들이 과거를 통해 관직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평생 추구해야 할 가치로 여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혼인 때문이었다. 당대에는 혼인할 때에 특히 가문을 중시하였다. 거기에는 오랜 명문 귀족뿐만 아

畝, 非困而何? 《枕中記》

- 15) 예컨대 당대의 여러 관리들의 봉록은 9품 18등급에 의해 처리했으며, 봉록은 實物과 화폐 그리고 토지 등 세 가지를 포함했다. 실물은 대체로 녹미를 가리킨다. 이것은 정1품 7백석에서 종9품 3십 석까지 해마다 등급에 따라 지급되었다.(쑤리훤(이기홍 옮김), 《중국 고대 선비들의 생활사》, 고양, 인간사랑, 2014, 109쪽.)
- 16) 당대 이후 청대에 이르기까지 점차 시험이 엄격해져 주현관 시험인 童試, 성에서 보는 鄉試, 부에서 보는 會試, 궁에서 보는 殿試까지 수도 많았고, 매 심사 단계마다 선발과 도태의 과정을 반복해야 했기 때문에 평생을 시험장에서 소모하는 유생들도 적지 않았다.(이중텐, 앞의 책, 354-357쪽 참조.)

나라, 신진 관리와 명망 있는 선비의 집안도 해당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산동 명문 귀족의 세력이 당태종과 무척천에 의해 여러 차례 늘리긴 했지만 5대 성씨의 명문세가, 즉 隴西李·太原王·滎陽鄭·范陽盧·清河崔 씨의 세력은 누그러지지 않았다.¹⁷⁾ 그들은 명문세가에 속하지 못한 다른 성씨를 업신여기며 고귀하고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원의 한족들이 극도로 중시했던 전통 예법을 지키고자 최대한 노력했으며, 낮은 가문과는 혼인하지 않았다.¹⁸⁾ 바로 이런 연유로 이들 명문세가 자제들의 몸값은 점점 더 높아졌다. 심지어 하인들조차도 여처구니없을 정도의 교만과 자부심을 갖는 지경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인들 사이에 그 명문세가들과의 혼인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들과 혼인하는 방법이 바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었다.

《침중기》의 노생은 비록 꿈속이긴 하지만 수개월 만에 용모도 출중하고, 재산도 많은 清河 崔氏 가문의 규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듬해 진사에 登第하고, 관리가 된다. 비슷한 유형의 《南柯太守傳》에도 淳于棼이 부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중용된다. 이것은 명문세가와 혼인을 한 뒤 급제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주는데, 명문세가에서 들이고자 하는 사위가 만일 진사에 급제하기 전의 사인인 경우, 그를 도와 급제를 하도록 해 주거나, 아예 그것을 결혼의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있었음¹⁹⁾을 방증해줄 수 있는 자료이다.

또 《柳毅傳》에서는 용왕인 동정군의 딸이 유의에게 은혜를 갚고자 용

17) 왕비가 부마를 맞을 때에는 공신 집안을 택했는데, 특히 산동의 명문 귀족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았다. 그래서 魏徵·房玄齡·李勣 등이 모두 산동의 명문 귀족들과 혼인하고자 했으니 명문 귀족들이 감소될 수 없었다.(진동원(송정화·최수경 옮김),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서울, 박이정, 2005, 156-157쪽 참조.)

18) 예컨대 《唐國史補》에는 “이신이 명문세가를 골라 딸을 시집보내려 했고, 이 장영은 명망 있는 집안을 찾아 딸을 시집보내려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모두 관직이 관관에 이르렀다.[伊慎每求甲族以嫁子, 李长荣则求时名以嫁子, 皆自署为判官.]”라고 기재되어 있다.(李肇 撰, 《唐國史補》 卷上, 北京: 中華書局, 1991, 64쪽.)

19) 程薏、董乃斌, 《唐帝國的精神文明》,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360쪽.

궁에서 돌아와 상처하고 쓸쓸히 살고 있는 유의의 배필감으로 나타난다. 중매인은 유의에게 “범양 노씨 가문의 따님입니다.(有盧氏女, 范陽人也)”라고 소개한다. 용왕의 딸이 인간 세상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이한 일인데, 명문가의 성씨를 지닌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분명 은혜를 갚기 위해 온 최상의 배필감임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혼례를 올리는 날 “신랑과 신부 양쪽 모두 권문세가였으므로 그 법에 맞춰 예물을 사용하는 데에 말할 수 없이 풍성하였다.(俱爲豪族, 法用禮物, 盡其豐盛)”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또한 《곽소옥전》의 이생은 隴西 李氏로 권문세가의 자제였는데, 과거 급제 후 곽소옥을 배신하고서 혼인하게 된 대상이 “이종누이 노씨 역시 권세 있는 집안이었다.(表妹盧氏……盧亦甲族)”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 역시 권문세가 간의 혼인이었을 가능성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李娃傳》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기생의 신분으로 사랑하는 정생의 부인이 된 이와는 슬하에 네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고관 요직에 자리 잡고 “형제들이 권문세가 출신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내외의 가문들이 모두 융성하였다.(弟兄姻媾皆甲門, 內外隆盛)”라고 한 결말 역시 이러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 시험과 혼인은 긴밀하게 유착되어 하나의 특수한 신분 계층을 형성하였다. 그렇게 형성된 고대의 신분 제도는 그 당시 사회 권력과 재산의 분배 등에 대한 등급적 차별을 의미한다. 그것은 종교, 법률, 가족제도 등 여러 요소와 서로 결합되어 이른바 ‘혈통론’이라 일컫는 사회적 신분의 세습적인 계승 제도를 낳게 되었다. 그러한 세습적 신분은 또한 사회문화의 심층 구조를 이루고, 그러한 가치관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며 남아있다.²⁰⁾ 더 나아가서는 유교 전통을 계승한 기타 민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보장을 위한 공부가 수많은 사람들의 잠재의식으로, 또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²¹⁾

20) 공건 저, 이원길 역, 《세상을 사는 공자의 지혜》, 서울, 신원문화사, 1998, 176쪽.

Ⅲ. 긍정적 서사 기제로서의 科擧

중국 전통 사회에서 식자층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학문 범위는 사회에서의 공적인 역할, 즉 정치와 윤리의 범주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학자가 자신의 공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무대에 나가 자신의 신념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入世’이고, 그들에게는 과거를 통한 입세만이 세상에 참여하는 유일한 통로였다.²¹⁾

이러한 삶의 방식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시기 사인들에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고, 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또한 문학작품이다. 본장에서는 앞장에서와 달리 과거의 긍정적 기능, 즉 과거 급제로 인해 이야기 속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해소되는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李娃傳》의 남자 주인공은 滎陽公의 자제로 어려서부터 시문에 재주가 있어 다른 사람보다 확연히 뛰어났기에 당시 유명 인사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 또한 남달랐다. 그러나 그는 장안에 과거를 보러 와 倡妓 李娃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결국에는 만가를 부르는 상두꾼으로 전락한다. 아버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가문을 욕되게 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도록 매질한 뒤 내다 버린다. 거의 폐인이 된 그는 구걸을 하러 다니다가 다시 이와를 만나고, 이와는 자신으로 인해 나락에 떨어진 그를 보살피 공부에 매진하게 하고 과거에 응시하도록 한다. 3년이 지나고 남자는 한 번 만에 진사에 급제하고, 都府參軍이라는 벼슬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아버지는 “우리 부자가 모든 게 옛날과 같아졌다.(吾與爾父子如初)”고 말하며 창기였던 이와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혼례를 올려준다.

21) KBS 다큐멘터리 <공부하는 인간-2편 공자의 후예>(http://www.kbs.co.kr 2013. 3.7)

22) 이중텐, 앞의 책, 377쪽 참조.

당 전기의 대표작인 이 작품이 대중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남자를 끝까지 돌보는 이와의 지조와, 그것이 한 집안이 자손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창기였던 여인이 ‘泐國夫人’이라는 영예를 얻는 결실을 이루었다는데 있다. 이 이야기가 가문의 융성과 더불어 이와의 정절과 행실을 칭송하며 끝을 맺는 것도 이런 이유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름난 문벌 가문에서 비천한 계층의 창기를 아들의 배필로 인정하고 혼례를 올려주었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의 사회 상황으로는 이런 일이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작가는 매우 과격적으로 혼인을 통한 신분의 파괴를 시도한 것이다. 이화가 관직을 받아 임지로 떠나려는 남자에게 “훌륭한 가문의 규수와 결혼을 하셔서 선조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세요. 서로 어울리는 가문끼리 혼인을 맺어야 당신의 가문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君當結媛鼎族, 以奉蒸嘗. 中外婚媾, 無自黷也)”라고 전하는 말은 당시의 혼인관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제약은 과거 급제로 뛰어넘게 된다. 창기와 사랑에 빠진 아들을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유로 죽도록 매질을 해 내다버린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받아들였다. 게다가 창기였던 이와까지도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심리상태가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물론 아들을 살뜰하게 뒷바라지하여 성공시킨 여자이기는 하나 창기의 신분인 이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아버지의 과격적인 행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즉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작품 속에서 갈등을 고조시키며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켰던 요소들, 즉 처절하게 죽을 고비에 처한 아들과 그를 버린 아버지, 남자와의 이별을 앞두고 애절함이 극에 달했던 이와와 심정이 남자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당대 사인들의 애정행각을 묘사한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한 작품과 앞서 언급한 작품들이 과거 시험으로 인해 이야기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

이다. 하지만 《이와전》이 다른 점은 남자 주인공이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이야기 전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다시 元代 雜劇인 關漢卿의 《拜月亭》과 白樸의 《牆頭馬上》을 들 수 있다. 《배월정》과 《장두마상》은 원대 잡극 중 왕실보의 《서상기》, 鄭光祖의 《倩女離魂》과 함께 원대 잡극의 4대 애정극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배월정》은 전란 중 벌어지는 남녀의 애정을 그리고 있다. 서생 藏世隆과 王瑞蘭은 난리 중에 서로 만나 몰래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후에 우연히 만난 왕서란의 부친은 장세룡이 가난한 선비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딸을 데려가 버린다. 연락이 끊긴 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던 두 사람은 장세룡이 문과에 장원 급제한 뒤에야 왕서란의 아버지로부터 사위로 인정받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배월정》은 전란으로 피폐해진 세상을 하나의 희극으로 엮어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잘 반영하였다는 평을 받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왕서란의 아버지는 장세룡을 사위로 맞아들이려고 하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要旁人羨)²³⁾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과거 급제가 전통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백박의 《장두마상》은 白居易의 신악부 〈井底引銀瓶〉²⁴⁾의 내용에서 취제한 작품이다. 먼저 〈정저인은병〉의 내용을 살펴보자. 한 묘령의 아가씨가 자기 집 담에 기대어 청매를 가지고 놀다가 백마를 타고 담 밖을 지나가던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첫 눈에 반한 두 남녀는 마침내 도주를 약속하고, 남자의 말을 믿은 여자는 집을 뛰쳐나왔다. 그러나 봉건예법은 명분도 없고 도리에도 어긋난 이 사랑의 도피행각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기쁜 마음으로 남자의 집으로 따라갔던 여자는 상상도 못했던 난관에 부딪힌다. 시부모는 여자가 집으로 들어온 지 5년이 지나도록

23) 古詩文網(http://so.gushiwen.org/view_69891.aspx)

24) 妾弄青梅凭短墙，君骑白马傍垂杨。墙头马上遥相顾，一见知君即断肠。(金瓶梅，《백거이의 신악부 50수와 진중음 10수》，서울, 백산출판사, 2007, 150쪽.)

정식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상의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의 집에서도 살 수 없고 친정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다. 백거이가 노래한 시는 이처럼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

하지만 백박이 그려내는 《장두마상》의 결말은 백거이의 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제목 그대로 담벼락 밖을 내다보는 아가씨와 말을 탄 젊은 사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남자 주인공 裴少俊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 장안에서 낙양으로 진기한 화초를 사러 갔다가, 李世傑의 화원에서 그의 딸 李千金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첫눈에 반한다. 사랑에 빠진 배소준은 이천금을 데리고 도주한다. 아버지의 화원에 숨긴 채 7년을 동거하여 1남 1녀를 두게 된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이천금은 쫓겨나 낙양의 친정집으로 돌아가 수절한다. 그런 이천금을 다시 정식 아내로 맞이한 것은 배소준이 진사에 급제한 직후였다. 전통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비극으로 끝마칠 사랑의 도피행각을 작가 백박은 과거 급제라는 장치를 통해 극적인 반전을 이루며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지어냈다.

위에 언급한 원대 4대 애정극 가운데 두 작품에서 과거제가 플롯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다. 왜냐하면 몽고족이 건립한 원나라 초기 100년 가까이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과거제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민족 차별로 한족 지식인들을 고의적으로 배척하기 위해서였다. 《원사·형법지》에 기록되어 있는 민족 차별에 관한 갖가지 규정은 일일이 거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 이런 배타적인 정권에서 관원 선발에 있어 한족 지식인에게 유리한 학식과 평등 경쟁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과거 제도가 채택될 수 없었다. 물론 원나라 말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다시 과거제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급제자 수는 이전과 비교해서 매우 적었다. 역대 지식인들의 운명과 가치가 늘 과거 제도와 연관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원대는 지식인들의 가치가 가장 낮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대 4대 애정극 가운데 두 작품이 과거 제도를 모티브로 이야기의 근간을 구성한

것은 과거 제도에 대한 문인 계층의 본래적인 향수와 동경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지나친 추측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원대 이후 과거 제도는 극도로 발전하여 인재 선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됨과 동시에 그 폐단 또한 유례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로 인해 과거 제도는 명·청대의 모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 역량에 반하여 강렬한 비판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反科擧文學의 대표작인 오경재의 《儒林外史》를 비롯하여 포송령의 《聊齋志異》와 조설근의 《紅樓夢》 등에서 과거 제도에 대한 부조리와 그로 인한 폐해가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과거에 응시해 관리가 되는 것 외에는 지식인들에게 별다른 출로가 없던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 거기에 매달렸다. 그들은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로 빈궁하더라도 과거공부에서 진로를 바꿔 자신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로운 일을 해보려 하지 않았다. 이렇듯 모든 것을 바쳐 과거 급제라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욕망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무릇 글공부를 하여 출세한 사람’은 모두 ‘녹봉만 축내는 좀벌레(祿蠹)’²⁶⁾라고 치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도의 엄청난 매력은 마치 도박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실제로는 지극히 극소수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성공만하면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과 물질적 재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과거 제도의 이러한 실상들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확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급제가 작품의 플롯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才子佳人 소설 작품들은 여전히 대중의 환영을 받았다.

25) 진정(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 서울, 동아시아, 2003, 226-236쪽 참조.

26) 凡讀書上進的人,你就起个名字,叫做‘祿蠹’.《紅樓夢》卷19.(曹雪芹著,《紅樓夢》第一冊,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1987,323쪽.)

IV. 과거 제도의 잔영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의 서사 작품들 속에서 과거 제도는 작품의 희비성을 결정하는 주요 기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고대의 대다수 작가들이 사인 계층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과거 제도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대개 문장을 짓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이요, 길이 전해질 훌륭한 일(蓋文章經國之大業, 不朽之盛事)”²⁷⁾이라는 관념 아래 문인이 곧 작가이자 정치가, 학자, 교육자였던 고대 사회에서 과거 시험은 한 사람의 영욕과 부침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였다.

과거 제도는 이처럼 중국의 지식인 계층을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서 변영한 제도이다. 과거 제도처럼 관리를 채용하는 데 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은 유럽 등에서는 극히 최근까지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²⁸⁾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랜 전부터 시작되어 오랜 동안 지속되어온 제도였다. 그리고 그 제도는 중국 지식인 계층의 무모하리만치 적극적인 호응 위에 변영한 제도로 정착하였다.

1,300여 년 동안 유지된 과거 제도는 혈연 세습에 의한 정치적 독점을 타파하는 한편, 그 시험 과목이 중국 문명의 주를 이루는 관념과 철학 및 도덕관이었기에 이것들을 대대로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중국 문화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근본적인 바탕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1,300여 년간 장원 700여 명과 진사 11만여 명, 그리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거인이 배출되었다. 중국 전역의 크고 작은 지역과 조정의 정치를 담당하는 인재들은 거의 모두 과거를 통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²⁹⁾

27) 蕭統 編, 李善 注, 《文選·典論》第6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2271쪽.

28) 영국에서 관리 임용에 시험을 도입한 시기는 1870년 이후이며, 미국은 더 늦은 1883년의 일이다.(미야자키 이치사다, 같은 책, 240-241쪽.)

그러나 역사상 나타난 모든 제도에 영고성쇠가 있듯이 과거 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거 제도가 지닌 가장 큰 모순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심리 상태에서 기인한 것이다. 과거 시험이 외형적으로 과시하는 공평함은 거의 모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성의 유혹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九州의 대지가 온통 과거 시험장으로 바뀌고, 글을 아는 독서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인생의 성과와 영욕을 모두 그 안에 저당 잡히고 말았다. 또한 과거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과거 이외에 정규적인 인재 발탁의 길을 폐쇄시켰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 시험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하는 정치적 격전의 장으로 변모시켜 놓았다. 그리하여 과거제를 처음 만들 때의 이성적인 동기는 점차 변질되고 말았다.³⁰⁾

중국의 과거 제도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 가운데 그 우수성을 피력하는 것보다는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올 수 밖에 없었던 그 폐해를 알려주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예컨대 과거 제도가 가져온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挾帶³¹⁾의 다양한 흔적들, 고사장 앞에서 몸수색을 대기하느라 줄지어 선 응시생 무리,³²⁾ 槍手³³⁾의 존재 등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한 채 욕망을 위해 서로 불신하는 군중의 모습들이 과거 제도의 몰락과 관련해 더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 제도에는 실로 중국 특유의 文을 숭상하는 경향이 관철되어 있다는 점이다.³⁴⁾ 이는 중국의 사회와 문

29) 쑤수양(심규호 옮김), 《중국책》, 서울, 민음사, 2015, 123쪽.

30) 위치우위, 앞의 책, 343-344쪽 참조.

31) 협대란 모범답안을 몰래 휴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같은 책 380쪽 참조.

32)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해 고사장 입장 전 몸수색을 하던 것이 청대에 이르면 응시생들의 변발을 풀어헤쳐 조사하거나 심지어 항문까지 검사하는 일이 벌어졌다.(같은 책, 380쪽.)

33) 창수란 시험장에서 다른 응시생을 대신해서 문장을 써 주는 대리응시자를 일컫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같은 책 381쪽 참조.

34) 미야자키 이치사다, 앞의 책, 245쪽.

화적 기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武보다 文이 중시되던 그 오랜 시간동안 매우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공부’를 통해 사회에서 공인하는 ‘성공’이 가능하다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 제도가 지닌 애초의 합리적인 취지는 점증하는 부정들로 인해 성공으로 가는 비정상적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데에 있다. 굶을 대로 굶은 중국의 과거 시험은 20세기에 들어선 1904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한 세기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그 어두운 그림자는 곳곳에서 느껴진다. 게다가 과거 제도의 실행으로 형성된 이러한 심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거부감 없는 보편적인 관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라는 제목의 한 다큐멘터리³⁵⁾가운데 ‘제2부: 공자의 후예-동양인은 왜 죽도록 공부하는가’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러한 보편적 관념의 잔재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류는 공통점을 지닌다. 어쩌면 공부에 대한 열정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 문화권마다 서로 다른 공부의 목적과 기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공부의 역사가 수천 년 간 맥을 유지해 온 이유와 특정한 학습방식을 고수해 온 사회가 반영하는 철학과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공자의 후예’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적, 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양인들의 경우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 유사한 목적의식과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을 포함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다루었는데, 놀랍게도 죽도록 공부하는 것이 ‘나’를 뛰어넘어 ‘우리’, 즉 가족과 국가를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설사 모든 사람들이 가족의 체면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공부를 하지는 않겠지만, 또 그것이 결국 자아를 위한 것임을 모르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아왔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또 밤늦도록 학원가를 헤매며 공부를 하느라 지친 초등생

35) KBS 다큐멘터리, <공부하는 인간-2편 공자의 후예>(http://www.kbs.co.kr 2013. 3.7.)

들의 귀가, 열심히 해야 나중에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다고 그들은 대답한다. 어떻게 이런 일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갖가지 고시를 치르기 위해 몸도 제대로 펴지 못할 만큼 좁은 고시원의 쪽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모습, 고시에 떨어져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한 채 고단한 삶에 지쳐가는 수많은 高試浪人들을 보면 그야말로 한 세기 이전에 폐지되었던 과거 시험이 현 사회 속에 버젓이 부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남들보다는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배후에는 부귀공명을 이상적인 가치로 삼아 과거 급제를 위해 사랑과 신의도 저버리던 사인들의 모습, 그리고 작중 인물들 간의 사랑, 혼인을 둘러싼 갈등이 과거 급제로 인해 거짓말같이 해소되는 작품 속 주인공들의 잔영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하다. 어쩌면 긴 세월을 묵혀온 文에 대한 숭상과 과거 시험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와 위엄들의 자취일 수도 있다. 아니면 유가 학설의 심각한 단점 중의 하나인 신분의 상하귀천의 구분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한 것³⁶⁾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신분의 구분, 고질적으로 뿌리내린 그 현상은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만연하고 있는 ‘수저론’의 근간이 아닌지 통찰할 필요가 있다.

V. 나오는 말

중국 전통 사회에 있어서 과거 제도는 개인의 영욕과 부침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유교적 정치, 신분 질서 등이 줄곧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던 전통 사회에서 과거 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완비된 형식을 갖춘 관리 임용 제도였던 것이 사실이다. 가문도 혈통도 따지지 않고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귀족 정치를 끝내 무너뜨린 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애초의 바람직한 취지는

36) 찌에쓰중, 앞의 책, 115쪽.

점차 변질되고, 심지어 문벌 가문과의 혼인을 통한 결탁으로 사회의 특수한 계층을 형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과거의 당락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정과 친족, 고향, 그리고 가문의 영욕과도 뒤엉켜 있어 멈출 줄 모르고 끌고 가는 사회적 굴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궁극에는 그 공부에 매진했던 지식인들조차 스스로를 ‘가장 쓸모없는 집단’이라고 자조하는 데에까지 이르면서 과거제는 폐지된다.

고대 중국의 과거 제도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소설이나 희곡 등의 고대 문학 작품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작품 속에서 갈등을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기능으로써, 혹은 갈등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기능으로써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그 이야기들 속의 과거 제도가 보여주는 양상들이 매우 사실적이고, 그 당시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많은 역사서들은 증명한다. 거꾸로 전통 사회에서 만들어진 허구적 작품들은 선택과 편집의 과정을 거친 후 역사 그 자체의 지위로 상승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드러나는 과거제와 관련된 가치 및 다양한 현상들은 일반 독자들에게 사실에 관한 신뢰할만한 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일종의 사회적 보편성이 되었다. 그 보편성은 ‘상식’과 대중의 견해를 따라 형성되게 마련이다. 사실적이든 가설적이든, 그런 ‘견해’가 바로 오늘날 이데올로기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른바 이데올로기는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동시에 구성하는 公理와 편견의 총체³⁷⁾인 것이다.

천여 년 간 과거 제도를 통해 형성된 공부, 경쟁, 신분 등의 가치관들은 옹고그름을 떠나 또 다시 천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유교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영향을 행사한다.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 보편성은 현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37) 루샤오펑, 위의 책, 156-169쪽 참조.

<References >

1. Cao Xueqin. *The Story of Stone*. Beijing: Beijing Normal University Press, 1987.
2. Chen Dongyuan(Song, Chunghua & Choi, Sookyung trans.). *Life History of Chinese Woman*. Seoul: Pagijong Press, 2005.
3. Cheng Qiang & Dong Naibin. *Moral civilization of Tang Dynasdy*. Beijing: China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1996.
4. Chung, Bumjin. *YingYingZhua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1995.
5. Georg Lukacs(Kim, Kyungsik trans.). *The Theory of Romance*. Seoul: Moonye Press, 2011.
6. GuShiWenWang <http://www.gushiwen.org>.
7. Homo Academicus: Descendants of Confucius, <http://www.kbs.co.kr> 2013.3.7.
8. Jie Sizong(Chung, Sekyung trans.). *The Refinement Digest*. Seoul: Hye moon Press, 2008.
9. Jin Zheng(Kim, Hyumin trans.). *The State Examination System and Chinese Culture*. Seoul: EastAsia Press, 2003.
10. Kim, Chulsoo. *Xinyuefu and Qinzhongyin of Bai Ju-yi*. Seoul: Baeksan Press, 2007.
11. Kim, Hakzu.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Seoul: Shinasa, 2008.
12. Kong Gyun(Lee, Wongil trans.). *Wisdom of Confucius*. Seoul: Shinwon Press, 1998.
13. Li Jianguo. *TangWuDaiZhiGuaiChuanQiXuLu*. TianJin: NaKai University Press, 1994.
14. Li Zhao. *TangGuoShiBu*. Beijing: ZhongHuaShuJu, 1991.

15. Lu Shaopeng(Cho, Miwon, Park, Kyehwa & Son Suyoung, trans.). *From history to fiction*. Seoul: Gil Press, 2001.
16. Lu Xun. *An Outlined History of Chinese Novel*, ShangHai: ShangHai Guji Press, 1998.
17. Miyazaki Yichisada(Chun, Haesun trans.). *A test horse in China*. Koyang: History criticism Press, 2016.
18. Su Shuyang(Chun, Haesun trans.). *ZhongGuoDuBen*. Seoul: Minumsa, 2015.
19. Su Tong(annotated by Li Shan). *A Selection of Literary Works*, ShangHai: ShangHaiGuji Press, 1996.
20. Sun Liqun(Lee, Kiheun trans.). *Life History of Ancient Chiese Classical Scholar*. Koyang: Yingansarang Press, 2014.
21. Xu Shinian, *Collection of Tang Dynasty's Novel*, ZhengZhou: Zheng Zhou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Press, 1982.
22. Yi Zhongtian(Kang, Kyungyi trans.). *Sadness of the Empire*. Eye of Ra Press, 2015.
23. Yu Qiuyu, *A Collection of Essays at a Mountain Retreat*, Seoul: Mirae Media & Books, 2003.

< 참고문헌 >

1. 曹雪芹, 《紅樓夢》 第一冊,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7.
2. 진동원(송정화·최수경 옮김),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서울, 박이정, 2005.
3. 程薺, 董乃斌, 《唐帝國的精神文明》,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4. 정범진 편역, 《앵앵전》,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5.
5. 게오르그 루카치(김경식 옮김), 《소설의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 2011.
6. 古詩文網 (<http://www.gushiwen.org>)
 7. 짜에쓰중(정세경 옮김), 《생각의 틀을 넓히는 교양 다이제스트》, 서울, 해문서관, 2008.
 8. 진정(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 서울, 동아시아, 2003.
 9. 金喆洙, 《백거이의 신악부 50수와 진중음 10수》, 서울, 백산출판사, 2007.
 10. 김학주, 《중국문학사》, 서울, 신아사, 2008.
 11. 공건(이원길 역), 《세상을 사는 공자의 지혜》, 서울, 신원문화사, 1998.
 12. 李劍國, 《唐五代志怪傳奇敘錄》,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4.
 13. 李肇 撰, 《唐國史補》, 北京, 中華書局, 1991.
 14. 루샤오펑(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강릉, 길, 2001.
 15. 魯迅 撰, 《中國小說史略》 卷9,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16. 미야자키 이치사다(전혜선 옮김), 《과거, 중국의 시험지옥》, 고양, 역사비평사, 2016.
 17. 쑤수양(심규호 옮김), 《중국책》, 서울, 민음사, 2015.
 18. 蘇統 編, 李善 注, 《文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19. 쏜리췌(이기홍 옮김), 《중국 고대 선비들의 생활사》, 고양, 인간사랑, 2014.
 20. 徐士年 選注, 《唐代小說選》, 鄭州, 中州書畫出版社, 1982.
 21. 이중텐(강경이 옮김), 《제국의 슬픔》, 서울, 라의눈, 2015.
 22. 위치우위(유소영·심규호 옮김), 《천년의 정원》, 서울, 미래M&B, 2003.
 23. KBS 다큐멘터리, 〈공부하는 인간 - 2편 공자의 후예〉(<http://www.kbs.co.kr> 2013.3.7)

<Abstract>

In the Ancient Chinese society, the State Examination System was a critical factor that determines individual's honor and disgrace and ups and downs of life. In traditional community where Confucian politics, humanities, status order worked as a dominating ideology, it is true that the examination system was an employment system that had a near perfect form that has not been seen in anywhere in the world. However, the desirable means of it faded and it created a special class by marriages between higher classes as it became formidable meaning of eminence in family, kin, hometown and clans rather than individual itself. Eventually, it is abolished to the end that even the most educated people call themselves 'the most useless group'.

Examination in ancient China was an ideology that is maintained for over a century. It is shown in many different aspects in novels and plays and worked as a key factor that winds and unwinds the plot. It is proved by many history that it is a very true and possible faces that the system can have.

Studying, competitions and classes formed by the system plays a important role in the people living more than a thousand years later in confucian culture apart from right or wrong. The universal value it has did not vanish in today's society but prospers in perverted forms such as 'spoon theory'.

Key Words : 공부(Study), 과거 제도(The State Examination System), 경쟁(Competition), 계층(Class), 수저론(Spoon theory), 사회적 보편성(Social Universality), 혼인(Marriages)

